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이며, ‘구원’이며, ‘해’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
2. 〈말씀을 중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살아야 한다.
4.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일이 있으니, 곧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구원’을 이뤄야 된다.
5. 행해야 ‘구원’이다.
6. 행할 때는 혼자 행하지 말고 ‘주’와 같이 일체 돼서 행해야 된다.
7. 〈구원〉은 ‘하나님’과 ‘주’와 일체 돼서 이뤄야 된다. 이는 절대적인 원리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는 죽는 것이 절대적인 원리이듯 구원도 그러하다.
8.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곧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 줘서 말씀대로 행하게 해 주고, 길러 주고, 잡아 주고, 이끌어

줘서 구원시켜야 된다.

9.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할 일이 세 가지다. 첫째, ‘자기가 구원’ 받고, 둘째, 말씀을 전해 줘서 ‘형제들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 이 세 가지는 마치 사람에게 영, 혼, 육이 필요하듯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10. 구원을 받는 데는 먼저 하나님과 주와 일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해서 형제들을 또 구원시켜야 된다.
11. <말씀을 듣고 자기만 구원받고 끝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100% 이룰 수가 없다. 구원을 받아도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고로 구원을 받아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떳떳하지 못하다.
12. <말씀>을 받고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니, 행하여 ‘구원받는 일’이다.
13.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일체 된다. 고로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
14. <말씀>을 받고 믿고 따랐으면, 그다음에는 이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그리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해 줘야 된다.

15. <말씀>을 전했기에 지금 많은 자들이 모여든 것이다.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혼자였다.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펴겠느냐. 신부들이 없으니 펴 수가 없는 것이다. 마치 결혼식에 여자가 없는 격이다.
16.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전도해야 뜻을 편다. 고로 선생도 전도했다. 3만 명을 전도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한다. <말씀>을 전했기에 ‘하나님의 지구 창조 목적, 사람 창조 목적, 사랑의 뜻’을 다 이룬 것이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한 격이 됐다. 곧 ‘사랑 휴거’를 이뤘다.
17. 휴거를 이뤘으면, 그다음에는 ‘사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는 휴거를 이뤘으니, 재미있게 하나님의 뜻을 펴며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만 남았다. 헤어지면 안 된다. 지금은 ‘황금기’다. 계절을 볼 때도 그러하다. 이때 단풍 절정기가 지나면 찬바람이 분다. 그때 가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단풍을 보려고 하느냐? <때>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제때, 제 할 일을 해라.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셨다. 이 황금기의 때에 <새벽예배에 안 나오는 자들>은 ‘순간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다.
18. 제때 행해야 얻을 것을 얻는다.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 이 잠언을 명심해라. 뇌 속 깊이, 뱃속 깊이 넣고 잊지 말아

라.

19. 제때 못 해서 얻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얻지 못해서 모르고, <행한 사람>은 얻었기에 안다. <행한 사람>은 ‘얻은 것’을 가져다가 창고 가득히 채워 놓았다. 그러나 <행하지 않은 사람>은 ‘빈 창고’다. 얻은 것이 없으니 기쁨도, 만족도 없다.

20. 얻어야 기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린다.

21. <사랑하는 애인>도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느냐. <행하지 않은 자들>은 주를 뺀 것이다. 왜? <주>와 일체가 안 됐기 때문이다.

22. <주>를 뺀다면 ‘신랑’을 뺀 것과 같다. 신랑을 맞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는 인간이 ‘책임’을 못 해서다. <신랑을 맞지 못한 자들>은 미련하여 사랑의 등불을 밝히지 못해 신랑을 맞지 못했다. 서운함 타고, 섭섭함 타고, 이유 달고,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들을 하나, ‘하나님 말씀의 검’이 지나가면 목도 달아나고, 몸도 달아난다. 그대로 딱 끊어진다. <때>가 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주와 같이 행하여라.

23.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24.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 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사랑 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펴며 같이 산다.

25.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거스르지 말아라.” 하는 잠언이 있다. 말을 안 듣고 마음을 거스르면, 아무리 팔방미인이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26.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며 ‘주’ 다. 또한 <말씀>은 ‘사랑 덩어리, 선악과 덩어리, 생명나무 덩어리’ 다. 이 말씀을 뇌 속에, 뱃속에,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 그래야 계속 행하게 되고, 행해야 감동과 감화가 되고, 스릴을 느끼고 흥분된다.

27.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흥분’이 없다.

28. <시대 하나님의 궁>을 짓는 것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계속 행하니 마음이 흥분된 것이다. 행했기 때문에 돌이 계속 쌓이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이 흥분된 것이다. -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도 ‘사랑’이다.

29. <명예와 직급의 권세>가 아니다. <섭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도 권세가 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최고의 권세자’요, ‘최고 힘 있는 자’이며, ‘능력자’다.

30. <주>는 생중계하듯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다. 저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행하느냐는 ‘본인 의향’이다.

31.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몸’ 이 된다. <성령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님의 몸’ 이 된다.

32. <말씀>을 받았으면, 행해야 된다.

33. <말씀>을 못 받으면 ‘갈 길’ 을 잃어버리고, ‘뜻’ 도 못 이룬다. 매일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해야 된다.

34.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35. <이 시대 말씀>을 받아야 ‘이 시대 하나님의 뜻’ 을 편다. <구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 뜻’ 을 펼 수가 없다. 그들은 “구세주가 곧 온다. 새 시대가 온다.” 한다. 마치 여우가 사냥감을 앞에 놓고 이빨은 가는데 물지는 못하는 것과 같다. 이빨까며 흥측한 말들만 하는 격이다. “주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하는 말은 얼마나 아름답고 합당하냐. 이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 와 같다.

36. 지금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자와 사랑하고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때다. 고로 <때에 합당한 말>이 필요하다.

37. <말>은 ‘이치’ 에 맞아야 되고 합당해야 된다.

38. <주>는 ‘행한 것’ 을 말한다. <행할 것>을 말해도, 그것을 틀

림없이 행한다. 밤이 새도록 행하고야 만다.

39. 선생이 시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과 성령님께 약속하기를, 내가 나가면 밤낮 없이 뛰고 달리고, 땅과 하늘 끝이 닿게 날겠다고 했다. 그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리하여라.” 말씀하셨다. 고로 그 약속대로 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밤낮으로 뛰면서 행해야 된다.
40. 이미 시대 5만 잠언을 주고, 3000여 편의 시를 주고, 엄청난 설교 말씀들을 줬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때’ 다.
41. <말씀>을 받았으면 자기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많은 생명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뜻’ 을 이루는 것이다.